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직장 내 악덕 갑질 타파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 보는 4월 4일 첫 방송을 예고하고 있는 MBC 새 월화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의 주인공 박원국이 오는 4월 4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회의 악덕 갑질을 타파하는 해사이다 드라마의 탄생을 예고하는 1차 티저 영상을 공개해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속이 뻥 뚫리는 1차 티저 영상 공개

(극본 김반디 [연출 박원국]이 오는 4월 4일 ‘아이템’ 후속으로 방송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회의 악덕 갑질을 타파하는 해사이다 드라마의 탄생을 예고하는 1차 티저 영상을 공개해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과거 국가대표급 유도 선수 출신이자 체육 교사로서 건실한 삶을 꿈꿨으나 ‘욱’하는 성격 때문에 퇴출된 후 무사안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무원이 된 ‘조진갑’(김동욱 분)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 일하며 사회의 악덕 ‘갑’들을 응징하는 이야기를 다룬 사회풍자 드라마.

‘앵그리 밥’을 통해 한국 교육의 현실을 날카롭게 짚어냈던 김반디 작가가 집필을 맡고, ‘드라마 페스티벌 터닝 포인트’와 ‘군주 가문의 주인’을 연출했던 박원국 PD가 연출을 맡아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

다.

이 가운데 공개된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의 1차 티저 영상은 강렬하고 통쾌하다. 다른 티저 영상과는 달리, 일러스트 만화로 구성된 이번 티저 영상은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 인방극장에 선사할 통쾌한 사이드 매력을 예고하고 있어 시청을 압도하는 것. 사이드가 특하고 터질 때의 시원한 느낌을 만화의 이미지로 구현해낸 것은 물론, 뚜껑이 열릴 때의 ASMR같은 사운드는 드라마에서 그려질 갑질과의 전쟁을 통해 시청자들이 느낄 통쾌함을 실감나게 보여주며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기에 가능한 특별한 티저 영상을 완성했다.

여기에 타이틀 롤 ‘조진갑’ 역을 맡은 김동욱을 중심으로 그의 옛 제자이자 조력자가 되는 ‘천덕구’ 역의 김경남, 그리고 이번 작품으로

강렬한 이미지 변신을 예고하고 있는 ‘우도하’ 역의 류덕환과 ‘주미란’ 역의 박세영 등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매 작품마다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했던 배우들이 극중에서 선보일 활약에 대한 기대는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 왜 2019년 상반기 가장 주목 받는 기대작이 될 수 밖에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며 본편에 대한 호기심을 무한 자극한다.

특히, 1차 티저 영상을 접한 시청자들은 ‘티저 영상 보니까 본방송이 더 기대돼요~’, ‘김동욱이면 믿고 봄!! 존짜가’, ‘김동욱이 류덕환 이라!! 순과 신위가 조장풍으로 똥 찼다!! 무조건 본방송시’, ‘티저 영상부터 해사이다! 월화는 조장풍 확정!’ 등과 같은 폭발적인 반응을 쏟아내며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MBC 새 월화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오는 4월, ‘아이템’ 후속으로 방송된다.

청춘남녀의 달콤한 ‘입맞춤’

음악에 설렘과 감성이 담겼다



밴드, 클래식, 퓨전등으로 나뉜 속소에 들어간 9명은 퓨전등을 선택한 송소희와 남태현을 제외하고 각자 매력 어필 시간을 가졌다. 환상의 컬래버 조합을 찾기 위한 자리에서 최정훈은 팝페라 가수 손태진을 제치고 소유의 선택을 받았고 문별은 편지와 경쟁 끝에 산들의 손을 잡았다. 남태현은 송소희와 1대 1 비율을 맞추며 파트너 경쟁 없이 무혈입성했다.

짜을 이론 각 조는 함께 호흡할 가수들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소유는 동생인 최정훈과 삼계탕을 먹으며 함께 부를 ‘Shallow’를 선곡했고 남태현은 송소

희와 연애하는 듯한 시간을 가지며 자우림의 ‘스물다섯, 스물하나’를 골랐다.

1차 보이스 파트너 선택 후 첫 공연에서 소유와 최정훈, 남태현과 송소희는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다. 소유와 최정훈은 듣는 이들을 숨죽이게 하는 몰입도를 선사했고 남태현과 송소희는 연습 때 잘 안 맞는 듯 싶었지만 막상 공연에서는 환상의 하모니를 자랑했다.

뜻밖의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는 ‘입맞춤’으로 새로운 음악을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각 파트너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은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보는 듯한 설렘을 안겼다. 하지만 멋진 하모니를 선사하는 프로그램이기에 감성에 젖어 들게 했다.

각 부분별 파트너는 소유와 최정훈, 송소희와 남태현, 산들과 문별, 편지와 손태진, 딘딘 3명 등이 짝을 이뤘다.

“혜자가 필요해” ‘눈이 부시게’, 나이 초월한 우정 ‘몽클’



‘눈이 부시게’ 김혜자와 친구들의 나이를 초월한 우정이 몽클함을 안겼다. 이와 함께 정영숙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이어지며 드라마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5일 방송된 JTBC 월화드라마 ‘눈이 부시게’(연출 김석운, 극본 이남규·김수진, 제작 드라마하우스) 8회에서 혜자(김혜자)와 정을 쌓아가던 사별 할머니(정영숙)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혜자는 시간을 돌려 스물다섯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했다 이후 준하에게 “못 온대. 혜자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며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스물다섯 혜자를 대신해 마지막 인사를 했다.

준하도 “잘 됐다고 전해주세요”라는 말로 마음을 정리했지만, 표정에는 상심이 가득했다. 준하에게 미안하고 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가슴 아픈 혜자는 홀로 눈물을 쏟았다.

백속까지 친구인 혜자와 현주(김기은), 상은(송상은)의 관계도 변화를 맞이했다. 주어진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기로 했지만 70대 혜자의 품은 버거울 수밖에 없었다. 혜자는 친구들과 소풍을 나가도 어느새 한 걸음 뒤처졌다. 현실에 적응하기 위

해서는 자신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별 할머니와는 한 발 가까워졌다. 스물다섯에서는 익숙하지 않았던 패션도, 걷기보다 쉬는 게 편한 취향도 말하지 않아도 통했다. 사별 할머니는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된 혜자에게 “아들을 보러 미국에 간다”고 들뜬 마음을 털어놓고 준하가 이를 들었다.

고민하던 준하는 결국 사별 할머니에게 그동안 이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진실을 고백했다. 상처 받은 사별 할머니의 아픔은 누구도 쉽게 위로할 수 없었다. 혜자는 연락도 받지 않고 흥보관에도 좀처럼 나오지 않는 사별 할머니 격정에 현주와 상은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

약속 장소에서 혜자를 기다리던 현주와 상은이 속상한 마음을 나누고 있을 때 혜자가 등장했다. 더 이상 스물다섯이 될 수 없지만 혜자는 여전히 그들의 친구였다. 현주와 상은은 “체력 좀 달리고 노래방에서

이뤘다. 각종 시상식에서도 트로피를 휩쓸고 있다. 지난 3년간 올헤의 브랜드 대상의 올헤의 아이돌상, MGA 여자 부문 댄스상, 멜론뮤직 어워드 1thK 퍼포먼스상,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올헤의 발견상, 제8회 가온차트 K-POP 어워드 올헤의 월드뮤직상 등을 수상했다. 특히 올헤 제38회 골든디스크어워드 디지털음원 본상, 제28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본상, 제33회 일본 골든디스크 대상 베스트 3 뉴 아티스트상을 거머쥐며 한층 높아진 모모랜드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골든인 신곡으로 대세 행보에 정점을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모모랜드, 오는 20일 컴백 확정



그들 모모랜드(혜빈, 나윤, 아인, 낸시, 주이, 연우, 제인, 데이지, 태하)가 컴백한다.

복수의 가요 관계자에 따르면

이후 1월 필리핀 공식 팬미팅을 시작으로 2월까지 해외 팬미팅을 진행했다. 한국과 두바이, 필리핀, 일본 등 해외 지역에서 진행된 글로벌 팬미팅을 통해 약 1만 5,000명의 관객을 모으며 글로벌 인기를 실감했다.

2016년 EP 앨범 ‘Welcome to MOMOLAND 웰컴 투 모모랜드’로 데뷔해 4년차에 접어들어 모모랜드는 실트 없는 활동과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며 대세 걸그룹으로 거듭났다. ‘뽀뽀’ 열풍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고, 차트 역주행 쾌거를 이루며 ‘차트 인(실시간 차트 100위 내에 진입하는 것)’이라는 데뷔 초 꿈을

오늘의 운세 2019년 3월 7일 목요일 (음력 2월 1일)



▶**경계** 힘들게 살면서 시작은 어려우나 결과는 희망적이다. 중계, 건축, 해운업을 하는 사람은 소독 있겠다. 애정은 화합이 안 돼 언쟁이 심하겠다. 아내의 신체적 결함을 탓한다면 자신을 낮추는 일임을 알라.



▶**경계** 지난친 욕심으로 크게 투자하면 손해 볼 우려가 있으니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시데 삼각에 둔한 것 같다. 바, 오, 흥 성기 기회 잘 포착하면 대성할 수 있다.



▶**경계** 남을 원망하기 전에 자신의 결점이 무엇인지 먼저 반성하라. 1, 3, 7월생은 이기적인 성격은 버리고 마음 속에 맺힌 것을 풀어라. 가정의 중요성이 가슴 깊이 뿌리내리면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듯.



▶**경계** 지금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을 주변에서 알아주는 날이 올 것이다. 말없이 야망을 키우는 것이 곧 이루어질 듯. 사랑하는 사람 물래 행하는 일은 커다란 모험이다. 2, 8, 10월생 폭발 일보직전임을 알라.



▶**경계** 고난의 시기가 길고 소망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신의를 지키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한다면 좋은 성과 있겠다. 애정에는 노력여하에 따라 꽃이 피고 질 수 있음을 알라. 기, 바, 흥 성기 오늘은 화목을 다짐하는 날 옴으로 대하라.



▶**경계** 노부모님이 계시다면 먼 여행길은 안 하는 게 좋을 듯. 특히 건강에 신경써야겠다.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 외출하라. 애정은 순박코질 하는 기, 1, 7, 11월생 상대를 위로해 주는 아량을 베풀어라.



▶**경계** 정말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침착해야만이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법이다. 자기 일을 남에게 탓하지 말고 또 피하려고도 하지 마라. 지혜롭게 인내하며 문제점 풀 어라. 1, 5, 9월생 자신감과 여유가 요구된다.



▶**경계** 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느끼고 행복해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항상 다른 것을 동경하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하지만 순조롭지만은 않다. 기, 기, 흥 성기 남녀 관계로 구설이 들린다. 항상 언행에 조심하라.



▶**경계** 남의 사정을 봐주려고 보증을 선다거나 금전 거래를 한다면 피해볼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듯. 기, 사, 오 성기 사랑은 조건 없이 하라. 권태와 실증 날 때 신 경쓰는 게 좋을 듯.



▶**경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지만 만사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모든 것을 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순 리임을 알라. 1, 5, 8월생 하는 일에 불만을 갖지 말고 충실하 라. 뿌린 씨앗 거두어 들일 날만 남았구나.



▶**경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던 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가족과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라. 6, 8, 11월생 가정의 화목을 위해 현명한 판단이 요망된다. 개, 용, 양띠와 함께함이 좋을 듯.



▶**경계** 부부간에 평등한 위치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매 사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조건을 걸고 대한다면 진실한 마음을 받을 수 없음을 알라. 오, 사, 표성기 인내하며 문제점을 풀어야 할 때.